

환경친화와 환경규제의 내용 및 대응



노 순 규

한국기업 경영연구원장

1. 환경투자와 환경비즈니스

1) 기업활동과 환경문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의 원인은 기업활동에서 연유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업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핵심인 제품의 전체 과정 예컨대 원료의 취득,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기 까지 소모되는 자원과 그 과정에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은 물론 지역 및 국제간 환경보호라는 이름하에 잠재적 무역규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관련법안 및 제도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포장폐기물 관리법” 및 “자동차폐기물회수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도 좀더 환경보전에 적합한 관련법을 제정함은 물론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제품 및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경영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기업의 환경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대응

하여 우선 환경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기업경영면에서는 환경주의 경영이념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제환경규제가 자사에 미칠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을 동시에 감안하여 장·단기별로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 활동 각 단계별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전달할 사내환경기구를 신설 혹은 확대보장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환경우선의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환경규제를 엄격히 하는 한편 규제내용도 오염방지 위주에서 오염원천 봉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폐기물 삭감, 재활용 및 재순환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기업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재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사항들이다. 또한 대기, 토양, 수질의 정화를 위하여 오염기준치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환경감사제 도입, 상품의 품질규격 및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

각 기업은 환경문제를 도외시키고는
21세기의 기업활동이 성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인식해야 하며
사회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미래의 기업경쟁력은 대량생산의 능력보다는
자원절약과 재순환, 재활용 능력 및 환경이미지 개선여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라는 사황을 명심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투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설비 투자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9%로서 선진국의 수준인 약 5%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비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를 비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투자의 확대와 함께 기업은 환경문제를 경영의 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예컨대 기업차원에서 환경보전을 경영이념에 수용하는 한편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기업은 환경문제를 도외시키고는 21세기의 기업활동이 성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인식해야 하며 사회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미래의 기업경쟁력은 대량생산의 능력보다는 자원절약과 재순환, 재활용 능력 및 환경이미지 개선 여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라는 사황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업의 환경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은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이념을 사내·외에 공표하고 그에 따른 행동지침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후 각 부문별로 세부지침을 업무규정화하거나 매뉴얼(Manual)화하여 이를 경영 전 과정에 적용해 나가는 통합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조직과 실행시스템을 본다면 환경전담부서의 설치, 자체환경감사실시, 환경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회사내 종업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환경정보공개 등 대고객 홍보면에서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환경비즈니스

기업은 법규제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문제를 신시장 개척 및 사업 진출기회로 활용하려는 환경비즈니스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비즈니스 분야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신규수요가 증폭되어가는 미래의 성장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 각기업은 환경건전 상품 및 환경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도 충분히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비즈니스 유형은<표>참조).

<표> 환경비즈니스 유형

유형	내 용
공해대책형	공해방지장치, 저공해차, 환경공해계측기, 환경측정분석, 환경재평가
환경보전형	자원 및 에너지절약 혹은 기술시스템 폐기물의 재생 및 자원절약 환경 건전상품
환경창조 및 유지관리형	쾌적한 도시개발, 쾌적한 공장 및 사무소, 쾌적한 주택, 쾌적이동 시스템
정보형	환경정보시스템, 환경교육

자료 : 이숙향, 국제환경규제의 동향과 영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월간 지구환경, 세계지구환경보호협회, 1993,P,139

2. 외국의 환경보전 노력과 규제사례

1) 중 국

중국은 지난 1979년에 경제를 개방한 이후 성장제 일주의를 추구하였던 것을 이제는 환경을 중시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환경오염을 유발한 화학, 제지, 펄프, 피혁, 염료업종 등 중소공장 4만 2천여곳을 폐쇄했다. 그리고 나머지 1만여곳에 대해서도 곧 폐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문책하겠다고 경고했으며 국가환경 보호국은 전국 24개 지방에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 5만2천4백곳의 공장을 적발하여 각 지방정부가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 우선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복합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은 중국정부가 국제교역의 현안인 환경라운드(Green Round)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도 근래 급속히 확산되는 민간주도 환경보전운동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90년대 들어 해마다 10%이상의 고도성장을 누려온 중국은 그동안 제조업의 에너지 낭비구조와 환경보호시설미비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왔다. 미국 환경보호연구기관인 월드워치(World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지구 전체자원의 3분의 1가량을 소비해온 미국을 제치고 곡물, 고기, 화학비료, 철강, 석탄 등 일부 품목에서 세계최대소비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체 에너지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석탄으로 인하여 지난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억 톤이나 되었으며, 그 양은 지구 전체의 10%를 점한데 이어 21세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배출국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 최근호에 따르면 해외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도 근래 환경보전욕구가 증대되어 곧, 황금털이 원숭이 등 희귀동물 보존을 위한 산림보전운동, 화이허강 복원을 위한 오염배출 제지공장 폐쇄운동, 양쯔강 생태계 보전을 위

한 상형담 건설 저지운동 등 각종 환경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2) 덴 마 크

인구 5백만명의 덴마크에서 연간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약 8천5백만톤이다. 그 중 약3백만톤(ton)에 해당하는 일반 가정쓰레기의 대부분은 리사이클이나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에 이용되고 있다. 1990년도 전체 쓰레기의 처리상황은 리사이클 및 에너지가 각각 25%, 나머지 50%는 단순히 소각 혹은 매립지에 폐기처분되었지만 정부는 2천년도까지 폐기물을 25%로 억제하고 그 대신 리사이클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쓰레기 처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정책을 기반으로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1988년에 리사이클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 종이 등으로 만든 일회용 접시, 컵이나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려는 조치이다. 특히 덴마크는 생태학적인 시점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풍력이 클린 에너지로 재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이며 발트해나 북해로부터 강한 바람을 받는 입지 조건을 살린 풍력에너지의 활용을 오래전부터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부터 실용화되기 시작한 윈드터빈(wind turbine)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장래성을 바라본 덴마크 정부가 각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해왔다. 1991년에 윈드터빈은 덴마크 국내전력의 약3%를 충당할 만큼 성장하였고 2천년대에는 10%로 늘릴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을 갖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덴마크의 자세는 환경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엔 충분하다.

3)환경규제국가 사례

(1) 미 국

대기정화법(90년 11월에 개정)에 의거하여 98년까지

제품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PMs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공정 및 생산방식)가 기술장애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우리 산업의 생산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탄화수소, 질소화합물을 현행 기준치보다 각각 30%, 80%를 감소시켰으며 전기자동차 등 청정자동차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2) E U(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의 수거, 재생 및 재활용 목표 및 기준을 마련했으며 포장재의 원료조달, 생산, 소비, 폐기를 이르는 전과정분석의 유럽 표준치를 제정했다.

(3) 독 일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합성수지용기 등 포장재를 직접 수거토록 하는 포장재 쓰레기 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91년 8월)하고, 이를 폐자동차(92년 8월) 및 폐전기,전자제품(93년 12월)에 까지 확대하기 위해 입법예고 하고 있다.

(4) 일 본

냉장고, TV,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분리, 회수, 재생이 용이한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외 북유럽의 국가들 예컨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도 에너지 및 탄소세를 부과하여 에너지와 관련한 환경보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3. OECD와 PPMs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무역환경전문가 합동회의

에서 아래 10개 작업과제에 대하여 논의결과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 공정 및 생산방식
- 환경목적에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
-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및 무역개념
- 환경기준의 국제적 조화
- 경제적 수단, 환경보조금 및 무역
- 무역과 환경정책 및 협정의 검토
- 무역과 환경정책의 원칙과 개념
-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정책, 투자 및 무역
- 분쟁해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 환경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 개도국간에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해 국경세조정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거나 제품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PMs(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공정 및 생산방식)가 기술장애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우리 산업의 생산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제품관련 PPMs 규제를 허용하고 제품후관련 PPMs는 글로벌한 환경저해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무역, 환경보고서를 95년 5월에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사업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PMs의 규제가 무역과 연계되면 우리나라의 대 선진국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PPMs의 규제를 받게 될 산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 생산공정에서 특정유해물질을 사용 혹은 배출하는 도금, 피혁, 염색, 제지 등의 산업
- 중금속함유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혹은 기후변화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제철, 제강, 시멘트, 비료산업 등
- 폐수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금속, 기계, 화학, 섬유산업
- 제조후 유해폐기물을 다량배출하는 화학제품, 제지, 금속산업 등이다.

4. 환경보전에의 투자와 경영방침

1) 국제환경규제 대비책

국제적 환경규제 확산의 파급은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적인 환경규제강화 동향과 그 파급효과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 저 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재편 추진과 에너지 효율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해방지 기술이나 대체 성장기술의 개발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해야 하며 국제환경교섭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외교를 강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각자가 행하는 자원 절약이 나라를 살리고 자국을 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보전 국민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문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에너지 이용효율화, 산업구조의 조정 등을 잘 추진한다면 오히려 우리경제를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응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 환경보전의 경영방침

기업의 환경에 대한 투자와 소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잘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지도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및 안전관련 조직은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환경관련규제 특히 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등에 관하여 시의적절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제품이나 제조공정의 설계 및 평가를 할 경우 환경관련 고려사항을 비용, 품질 및 시의성 등과 동일한 비중을 주어야 한다.

넷째, 환경친화적 제품설계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같은 교육과 훈련은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다섯째, 환경관련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환경관련직원을 양성할 것 등이다.

이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환경문제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는 적극성을 띠고 경영에 임해야 한다. 즉 국민과 세계가 원하는 환경상품을 제조하지 않고는 기업이 존재할수 없다는 것을 경영이념화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측으로서의 자신의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가 환경친화제품에 부여하는 각종 마크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크로는 미국의 그린실(Green Seal) 혹은 소이실(Soy Seal), 독일의 블루엔젤(Blue Engel), 일본의 에코마크(Eco Mark) 등을 들 수 있다.